

200자 안내

日本の封建制

피터 듀스 지음 / 양필승·나행주 옮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사학과 교수인 저자가 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일본 봉건제의 형성·발전·쇠퇴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 이 책은 특히 일본봉건제의 변천을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선명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일본의 근대화가 유럽과는 다른 경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토쿠가와 체제를 통한 경제부흥과 아울러 봉건제적 유산의 과감한 청산이 일본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 세문서원 / A5신 / 196면 / 3500원

미치도록 시린 아침은 가쁜 호흡이어라

오쇼 라즈니쉬 지음 / 윤시원 옮김
세계적인 명상철학자요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던 저자가 지난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의 명상캠프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어린시절의 이야기와 각 종교경전에 대한 설법과 우화들을 모은 책.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면의 소리에 응하여 개인과 우주가 하나가 될 때 구도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저자의 가르침의 정수를 맞볼 수 있다. 선영사 / A5신 / 270면 / 3500원

사랑을 가꾸며 행복을 일구며

유성은 지음
'현대여성의 시간활용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오랫동안 각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에서 시간 및 목표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해왔던 저자가 여성들을 위한 시간관리기술을 소개한 책. 총8장으로 구성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자세와 함께 연령 및 결혼여부, 생활유형에 따른 시간관리 요령과 인생설계 방법 등을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 A5신 / 302면 / 3800원

어느 산부인과의 비밀

메리 히긴스 클라크 지음 / 도익수 옮김
변호사인 여주인공 캐리가 불의의 사고로 어느 산부인과에 입원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연쇄적인 살인사건, 이 책은 종래의 추리소설과는 다르게 독자에게는 범인을 공개한 채 그 범인이 벌이는 치밀한 살인행각과 고도의 지능으로 사건해결을 해나가는 수사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극적인 긴장감과 공포를 끝부분까지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소설이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6주간이나 머무르기도 했다. 문학출판공사 / A5신 / 328면 / 4000원

醉國

김수남 지음
대전일보에 연재되었던 작가의 첫 장편소설. 7공화국이라는 가상 시제하에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젊은이 한국충을 중심으로 권력의 힘과 향락사회의 이면을 그리고 있다. 전통적인 소설구성을 탈피, 수많은 일화와 우화·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작가 특유의 입담과 통찰력으로 종합무진 짜집기해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정치상황이 우리의 정신에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가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동학사 / A5신 / 396면 / 4800원

서울대학교 학창생활

손봉호 외 지음
손봉호, 오세영, 이인호, 김종철 등 서울대학교 교수 및 선배 16인이 이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모았다. 대학의 의미와 바람직한 대학생활 등 원론적인 이야기로부터 리포트작성법, 이성교제, 씨클활동, 대인관계, 여가활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절실한 문제들을 상세하고 쉽게 풀어쓰고 있다. 우석 / A5신 / 250면 / 3500원

사람의 아들

에밀 루드빅 지음 / 김문호 옮김
예수의 생애를 그의 인간적 성품에 초점을 두어 쓴 책. 독일어 문화권 뿐만 아니라 영어 문화권에서도 전기작가로 잘 알려진 작가는 복음서 기사들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재편집하는 형태로 이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스도로서의 神性보다는 인격체로서의 예수의 내면의 성숙과정과 변화와 아픔 등을 그리고 있다. '뜨거운 가슴'을 지녔던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만남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산글방 / A5신 / 252면 / 4000원

일화수목금토토

김선영 지음
첫 창작집 「우리시대의 운전」 발표 이후 3부작 대하소설 「애니깽」을 출간, 개성있는 작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의 짧은 이야기 모음. '한겨울은 물론 한여름에도 늘 찬바람을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작가 스스로 적고 있듯이 세상사는 일에도, 사랑에도 능숙하지 못한 외로운 남·여들의 이야기 23편이 코믹터치로 그려져 있다. 정암문화사 / A5신 / 166면 / 3800원

선거, 이렇게 치른다

이현출 엮음

선거의 기본인 조직, 선전, 자금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과학적인 선거운동 방법론을 제시한 책. 정당실무자로서의 필자의 경험과 일본 및 구미의 선거운동 자료를 바탕으로 엮었다. 선거기간을 초·중·종반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전술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부록으로 지자체선거법 요약·해설과 함께 지난 13대 선거의 홍보물과 선거구호 및 표어 등을 예시하여 실천활동에 참고가 되게 했다. 포커스 / A5신 / 256면 / 4500원

물을 수밖에 없는 물음들

앙드레 프로샤르 지음 / 김혜숙 옮김
프랑스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며 독특한 신앙체함과 철학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저자가 강단에 섰을 때 청소년들로부터 받은 질문 40가지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묶은 책. 삶, 종교, 우정, 사랑, 진리, 과학과 신앙의 문제 등 다양한 물음들에 대해 그는 '신으로 돌아가기'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견해를 들려주고 있다. 예진 / A5신 / 150면 / 3500원

삶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

그레고리 스톡 지음 / 신양숙 옮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당신도 죽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5년간 무엇을 하고 싶은가' 등이 책은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고차원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200여개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돈, 사랑, 섹스, 우정, 믿음 등 자신의 것으로 여겨왔던 가치질서를 향해 던지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을 통해 이 책은 삶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한겨레 / A5신 / 200면 / 3200원

부끄러움에 관한 명상

최인호 지음
'솔직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끄러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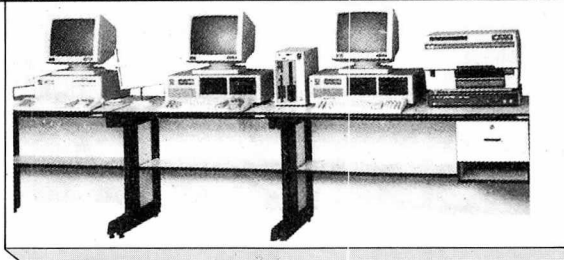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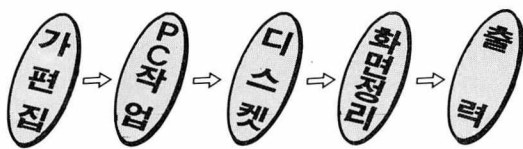
출판의 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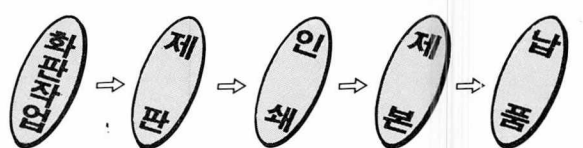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등과 서체, 급수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다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며 그것은 인간만이 가진 최고의 덕목'이라고 밝히는 작가의 수상집.

'육신이란 무엇인가' '어머니의 매니큐어' 등 1·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헛겍데기인 육신에 미혹된 채 참된 정신의 풍요를 상실해가는 모습에 대한 반성을, 2부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삶의 요소요소를 비추어보고 있는 글을 주로 실었다.

도서출판제3기획 / A5신 / 236면 / 3500원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윌리엄 거어널 지음 / 임금선 옮김

왜곡된 진리와 혼탁한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병으로 영적무장을 할 때만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 17C를 살았던 경건한 청교도로서의 저자의 신앙관과 간결한 문체로 성령, 칭의, 성화 등의 단어들에 지닌 심오한 깊이를 재인식하게 해주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예찬사 / A5신 / 376면 / 4800원

별은 아파도 반짝인다

신달자 지음

시인으로 에세이스트로서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작가의 신작 에세이집. '저렇게 빛나는 별들도 그들의 상처만큼 스스로 빛을 내며 반짝이는지도 모른다'고 서문에 적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삶의 언저리 마다 배어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순리로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과 젊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듯 써나간 수필 40여편을 총5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동서문학사 / A5신 / 270면 / 3600원

그리워할 것은 그리워하라

맹명관 지음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육아일기인 「우리들

의 짬뽕이」를 비롯, 광고에세이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먹고 삽니다」를 출간한 바 있는 저자의 수상집. '내 기억에 채집된 가난한 날의 삽화' '도술천으로 떠도는 슬픈 우리 영혼이여' '이제 옛날로 돌리기엔 하고픈 이야기가 너무 많다' 등 3부로 나누어 총 80여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의 애뜻한 사연들이 잔잔하고 서정적인 필치로 그려져 있다.

정인출판사 / A5신 / 218면 / 4000원

성서와 학문

이원설 외 지음

지난 1989년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회원교 공개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수정·보완하여 묶은 책. 이원설, 김세열, 이규현, 조옥, 심영기 등 5인의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전공분야에서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성서적 역사관' '성경과 경제학' '성서적 경영론' '성경과 과학' 등 모두 5편의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한남대기독교문화연구소 / A5신 / 286면 / 4000원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

한국노동교육협회 지음

조합원들의 최대관심사이며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의 계기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임금인상교섭이다. 이 책은 기업 안팎의 제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여 금년도 임금인상교섭에 있어 원칙은 무엇이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의 전략과 전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와 자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노동조합과 경영모색 등의 내용이 총4장에 걸쳐 수록돼 있다.

돌베개 / A5신 / 286면 / 4000원

무크

東學(제2집)

[권두언] 화합공존의 시대지향적 통일이념(김철)

[동학강좌 전제] ▲동학에서 본 여성상(박용옥) ▲변혁시대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장을병) ▲동학의 출판문화운동(이연복)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노태구) ▲최수운과 구전설화(조동일) ▲동학농민전쟁의 단계설(이이화) ▲한국과 일본의 민족원형과 미래(김용운) ▲손병희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박현서) ▲평등사상의 철학적 기초(차인석) ▲동학, 운동인가 혁명인가(이현희)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이정섭) ▲동학의 교리 전개(최동희) [시] 그 무렵(윤석산)

[논단] 동학의 경전번역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신암)

[연구논문] 동학농민혁명과정에서의 나주공방전(상)(박맹수)

[연재] 동학의 민족운동사(2)(김음조)

동선사 / A5신 / 264면 / 3200원

계간지

현대시사상(1991. 봄)

[시] 이희기 / 이가람 / 최승호 / 원구식 / 최준 / 신현림 / 석영희

[해외시] 기타조노 가즈에(김광림)

[기획] 페니미즘

▲성의 정치학(린네 퍼스) ▲여성비평(수스폴) ▲프랑스 페미니즘(엘렌 밀라드)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린네 퍼스·사라 밀즈) ▲여성비평의 어제와 오늘(권택영) ▲페니미즘 용어사전(사라 밀즈 외)

[논문] 이용악의 '낯은 집'의 기호학적 분석(황인교)

[서평] 정효구 / 박해현 / 박민영

[자료] 기교파와 조선시대(임화)

고려원 / A5신 / 212면 / 3000원

창작과 비평(1991. 봄)

[창간 25주년에 말한다] 김정환 / 이효재 / 이우성 / 이오덕 / 리영희 / 김병익 / 高崎宗司 / 김정호 / 황국명 / 조환규 / 문용식 / 송은영 / 백영서

[특집 I] 창간 25년기념 토론회

▲우리민족·변혁운동론의 어제와 오늘(강만길 / 임형택 / 조희연 외) ▲90년대 민족문화의 과제(백낙청 / 김명환 / 김재용 외)

[특집 II] 33인 신작시선

고은 / 황동규 / 민영 / 이성부 / 나혜철 / 장정일 / 채호기 / 박라연 외

[논문] ▲포스트모더니즘 무엇이 문제인가(도정일) ▲1930년대 후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발전과 반파시즘 인민전선(하정일) ▲베레스트로이카의 제3세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손호철)

[문화시평] 문화부 원년, 6공 미술정책의 허상(유홍준)

[대담] 베레스트로이카의 좌절과 사회주의의 장래(보리스 까갈리찌크 / 김수행)

[시론] 남북고위급회담의 쟁점과 전망(윤석인)

[장편연재] 들(윤정모)

[서평] 신경림 / 신승엽 / 석지영 / 문민영

[창작과 비평 총색인] (창간호~7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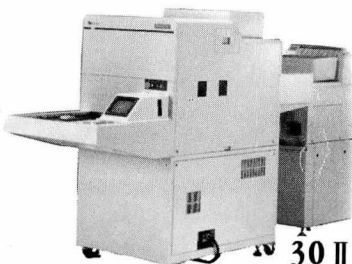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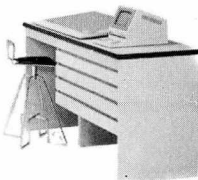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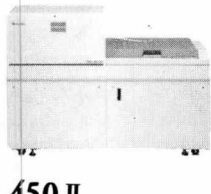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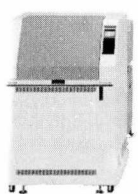
창작과비평사 / A5신 / 496면 / 4500원



단색 SCANART 450 II - 국반절 Size 초스피드 실현

“편집자의 창조력에 보답하는 製版시스템”

- 인공지능을 내장한 Hi-Tech제판라인은 시간경쟁의 추종을 불허.
- 초고속·정밀도로 시간낭비와 인력소모를 배제합니다.
- 네거티브 가격으로 포지티브제판을 봉사해 드립니다.



※ 시간약속은 금, 정밀은 신용! 믿고 맡기십시오!!

- 국내 최대 Size(국반절) 입출력
- 고속스캐닝으로 대량 신속처리
- 멀티 디지털 시스템으로 작업효율 향상
- 두꺼운 원고 자유자재 입력
- 토달편집 기능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

우성사

서울시·중구 충무로4가 56-1 (신도빌딩 2층) TEL: 272-2864 · FAX: 275-7016